<2013.10.18.>

전 북 일 보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기념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은 201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주관 고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중 하나로 5일부터 1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지 등 관내 주요 생물권보전지역(핵심지역)을 탐방, 핵심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된다.

청소년들은 첫날 운곡습지를 탐방하고 습지의 기능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으며, 12일 두 번째 시간에는 고인돌유적지 1코스와 2코스를 탐방,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맑고 청명한 가을날 지역 문화유산을 둘러본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말로만 듣던 생물권보전지역과 운곡습지가 무엇인지, 고인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어 뿌듯하고 친구들과 함께 모처럼 야외활동을 하여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주5일 수업 시대를 맞아 청소년들이 생태체험 외에도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힘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자신의 미래와 꿈을 설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성규기자 skk407@

전 라 일 보

고창 청소년 생태체험교실 운영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의미와 환경보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청소년 생태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17일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기념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총 3회 걸쳐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지 등 관내 주요 생물권보전지역 탐방을 통해 핵심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체험교실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운곡습지를 탐방하고 습지의 기능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으며 12일 두 번째 시간에는 고인돌유적지 1코스와 2코스를 탐방을 통해 고인돌의 유래와 종류 등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신동일기자 · sdi@

/편집=박세린기자 · iceblue@

새전북신문

고창군, 초등생 대상 '청소년 생태체험'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기념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관내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주관 고창군청소년수련관청소년운영위원회) 중 하나로 5일부터 19일까지 총 3회 6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체험은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지 등 관내 주요 생물권보전지역 탐방을 통해 핵심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 /고창=김동희 기자

전북중앙신문

고창군, 초등학생 대상 '생태체험' 운영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기념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관내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주관 고창군청소년수련관청소년운영위원회) 중 하나로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총 3회 6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체험은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지 등 관내 주요 생물권보전지역 탐방을 통해 핵심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

청소년들은 운곡습지를 탐방하고 습지의 기능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새만금일보

고창군, 관내 초등생 대상 청소년 생태체험 운영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기념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관내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주관 고창군청소년수련관청소년운영위원회) 중 하나로 5일부터 19일까지 총 3회 6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체험은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지 등 관내 주요 생물권보전지역 탐방을 통해 핵심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

청소년들은 첫 날 운곡습지를 탐방하고 습지의 기능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으며 12일 두 번째 시간에는 고인돌유적지 1코스와 2코스를 탐방하며 고인돌의 유래와 종류 등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맑고 청명한 가을날 지역 문화유산을 둘러본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말로만 듣던 생물권보전지역과 운곡습지가 무엇인지 고인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돼 뿌듯하고 친구들과 함께 모처럼 야외활동을 해 즐거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군 관계자는 "주5일 수업 시대를 맞아 청소년들이 생태체험 외에도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힘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자신의 미래와 꿈을 설계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전 민 일 보

고창군,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기념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관내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주관 고창군청소년수련관청소년운영위원회) 중 하나로 5일부터 19일까지 총 3회 6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체험은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지 등 관내 주요 생물권보전지역 탐방을 통해 핵심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

청소년들은 첫 날 운곡습지를 탐방하고 습지의 기능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으며, 12일 두 번째 시간에는 고인돌유적지 1코스와 2코스를 탐방하며 고인돌의 유래와 종류 등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맑고 청명한 가을날 지역 문화유산을 둘러본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말로만 듣던 생물권보전지역과 운곡습지가 무엇인지, 고인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어 뿌듯하고 친구들과 함께 모처럼 야외활동을 하여 즐거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고창=임동갑기자

전 주 매 일

"환경 중요성 알게되어 뿌듯해요"

고창군, 관내 초등학생 20명 대상 생태체험 실시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기념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관내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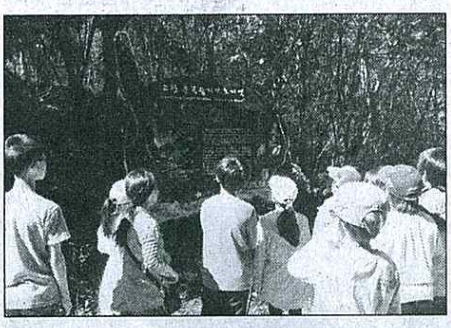
201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주관 고창군청소년수련관청소년운영위원회) 중 하나로 5일부터 19일까지 총 3회 6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체험은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지 등 관내 주요 생물권보전지역 탐방을 통해 핵심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

청소년들은 첫 날 운곡습지를 탐방하고 습지의 기능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으며, 12일 두 번째 시간에는 고인돌유적지 1코스와 2코스를 탐방하며 고인돌의 유래와 종류 등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맑고 청명한 가을날 지역 문화유산을 둘러본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말로만 듣던 생물권보전지역과 운곡습지가 무엇인지, 고인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어 뿌듯하고 친구들과 함께 모처럼 야외활동을 하여 즐거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 라 매 일

고창군, '청소년 생태체험' 운영



'청소년 생태체험'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첫날 고창 운곡습지를 탐방했다.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기념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관내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주관 고창군청소년수련관청소년운영위원회) 중 하나로 지난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총 3회 6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체험은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지 등 관내 주요 생물권보전지역 탐방을 통해 핵심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

청소년들은 첫 날 운곡습지를 탐방하고 습지의 기능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으며, 12일 두 번째 시간에는 고인돌유적지 1코스와 2코스를 탐방하며 고인돌의 유래와 종류 등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맑고 청명한 가을날 지역 문화유산을 둘러본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말로만 듣던 생물권보전지역과 운곡습지가 무엇인지 고인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돼 뿌듯하고 친구들과 함께 모처럼 야외활동을 해 즐거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군 관계자는"주5일 수업 시대를 맞아 청소년들이 생태체험 외에도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힘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자신의 미래와 꿈을 설계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병훈 기자

전 주 일 보

고창, 청소년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기념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관내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중 하나로 5일부터 19일까지 총 3회 6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체험은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지 등 관내 주요 생물권보전지역 탐방을 통해 핵심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

청소년들은 첫 날 운곡습지를 탐방하고 습지의 기능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으며, 12일 두 번째 시간에는 고인돌유적지 1코스와 2코스를 탐방하며 고인돌의 유래와 종류 등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주5일 수업 시대를 맞아 청소년들이 생태체험 외에도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힘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자신의 미래와 꿈을 설계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고창=김태완 기자

[단신] 고창, 청소년 생태체험 교실 운영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입력: 2013.10.17 15:49:01

© News1

전북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기념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태체험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 청소년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체험교실은 5~19일까지 총 3회 6시간으로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지 등 관내 주요 생물권보전지역을 탐방하며 지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